

## 원희룡 장관 ‘한-미 첨단 UAM 기술의 집약체 Overair 비상 기대’

- 한화-Overair社 기술협력 시너지로 글로벌 UAM 시장 겨냥 -
- 총체적 융합사업인 UAM,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. 대한민국의 높은 기술 인프라가 모여 글로벌 시장을 흔들어야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1일(수) 미국 로스앤젤레스(현지시각 1월 10일)에서 한국 대표 방산기업인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략적 투자한 Overair(오버에어)를 방문하여, CEO 벤 티그너(Ben Tigner)와 창립자 에이브 카렘(Abe Kareem)과 함께 양국의 기술협력 사항을 논의하고 현지에 파견 중인 국내 기술진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.
  - Overair는 한화시스템의 UAM 추진체 등 핵심부품을 개발·생산하는 기술력과 무인기 분야 권위자인 에이브 카렘이 설립한 Kareem Aircraft의 체계조립 기술이 집약된 회사로, 두 기업은 ‘20년부터 공동 개발을 시작하여 올해말 시제기 제작과 ‘26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체(Butterfly)를 개발하고 있다.
- 원 장관은 이번 현장방문에서 “양국의 뛰어난 기술력이 집약된 Overair의 기체 Butterfly는 높은 에너지 효율성, 정숙성 및 안전성 등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,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체로 거듭나길 바란다” 고 밝히면서, “추후 한국에서의 생산도 가능하지 않겠나” 라고 언급하며 기대감을 높였다.
  - Overair CEO 벤 티그너는 원 장관과의 면담에서 “Butterfly는 외부의 환경 등에 따라 프로펠러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OSTR(Optimum Speed Tilt Rotor)라는 기술을 활용해 배터리 사용량과 소음을 최소화하고, 높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” 고 덧붙였다.

- 한편, 원 장관은 Overair 현지에 파견 중인 우리 기술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 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“UAM 최첨단을 달리는 이 곳에서 핵심 인력으로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기술진들이 자랑스럽다” 고 강조하면서, “UAM분야는 제조, IT, 운항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융합 사업이자 폭발적 성장이 예측되는 분야이다.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. 지금 대한민국의 높은 기술 인프라들의 융합으로 글로벌 UAM시장을 흔들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해야한다” 고 힘주어 말했다.

2023. 1. 11.

국토교통부 대변인